

# 한국 기독교의 두 얼굴



## 결국 드러난 한국 사회의 민낯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가톨릭에서는 교구와 수도회를 중심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개신교회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비단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10여년 전 이라크 파병 문제를 시작으로 교회 안에서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진보와 보수를 신학대학이나 교파로 분류했습니다. 이를테면 한신대는 진보, 총신이나 고신은 보수, 기장은 진보, 합동과 고신은 보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거치면서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사라지고 교단 내의 정치적 성향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한국 기독교의 주류는 보수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파병문제를 놓고 의견차이가 생겼습니다. 신학적 차이나 교파의 차이보다는 세대 차이에 따라 대체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 젊은층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세월호 사건을 보는 눈도 그 연장선 상에 있지 않나 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교통사고로 수천 명이 죽는다고 하면서, 세월호 사건도 희생자가 많았을 뿐 여느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랭 바디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사고 'accident'가 아니라 사건 'event'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는 사람의 실수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사건은 보이지 않던 것을 드러나게 하고 관련이 없어보이던 것들을 연결시켜줍니다. 세월호 참사가 보여준 것은 회자된 것처럼 한국 사회의 민낯입니다.

저는 세 가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말한 것처럼 기술의 발달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도 '위험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 둘째 '관피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의하고 부패한 사회'의 모습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셋째 그럼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 기독교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위험한 사회보다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부패하고 부정직한 사회보다는 정의롭고 정직한 사회, 무책임한 사회보다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밖으로부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회가 아닐

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그러한 사회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정의롭고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자문해 보게 됩니다.

## 왜?

왜 한국 사회가 위험하고 무책임하며 불의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또 한국교회는 어쩌다가 한국사회와 꼭 닮은 꼴이 되었을까요? 20세기 후반 한국 역사는 특이한 경험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6.25 전쟁은 온 나라와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상처는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기억으로 남았고 모든 가치 설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회정의, 책임, 안전, 평화는 '살아남는 것'에 언제나 밀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만 해도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는 좌파보다는 우파가, 진보보다는 보수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이미 일본 강점기에 시작되었지만 그 뒤 훨씬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습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과 신학대학은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길을 걸어왔고,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교단과 신학대학은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수를 차지한 주류 기독교는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 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



**강영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벨기에 루뱅 대학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칸트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네덜란드 레이든 국립대학교와 계명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 『타인의 얼굴』,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강의』,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등이 있다.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과거보다 훨씬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고,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보수를 넘어 극우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 전후에 유년기를 보낸 세대들은 80년대 이후에 태어나 자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0년 전 네덜란드에서 열린 기독교 철학 심포지엄에서 ‘한국 문화와 기독교 신앙’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기독교 신앙을 시간적(초기-중기-최근)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 도교, 불교와 관련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60년대 말까지 한국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세론적이고 내세 중심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이 그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흐름이 전환된 것이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여기”에서 복음과 구원을 구호로 외치면서부터였습니다. 순복음교회는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절실할 때였습니다. 그 영향이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잘 살아보자고 외치기 시작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였습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현세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은 한국종교의 특징을 ‘현세성’으로 꼽는데, 이제 기독교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 항상 나를 깨뜨리는 것

대개 신앙이 보수적인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신앙이 진보적인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한국 기독교의 진보운동을 이끌던 사람들이 대거 정계에 흡수되면서 사실상 한국 기독교 내의 진보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보수적인 한국교회는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이고 그에 걸맞는 보수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보수신학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보수적 전통의 교회 안에서 진보적 성향의 젊은이들과 보수층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의 면모를 보면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따르면서도 진보적 방식으로 저항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과 신앙은 보수적이더라도 실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나 진보라는 틀로 신앙을 규정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전통을 고수하고 새로운 것에 저항한다거나, 진보라고 해서 과거는 다 버리고 무조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지켜야 할 부분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할 부분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보수가 곧 정치적 보수라거나, 신앙의 진보가 정치적 진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위협한 요소, 곧 자기 보존의 성향을 끊임없이 깨뜨려야 합니다. 스피노자(Baruch Spinoza)는 ‘코나투스 에센디’(conatus essendi), 곧 존재 유지 경향이 모든 개체 사물들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자기 보존의 성향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추동하는 데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지요.

##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신학과 삶?

삶의 진보성은 한국 보수신학의 보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보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의 인격과 신격, 예수의 삶과 사역에서 나오는 진보성이지만 한국교회의 보수성과 보수신학에서 진보적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복음서를 제대로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이야기하며 그저 윤리적으로만 다를 뿐 복음서의 내용이 지니는 급진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가르침, 치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 이 두 축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고통받는 자에 대한 연민, 공감과 연대, 그 사랑으로부터 진보성이 나옵니다. 진정한 보수는 이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진정한 진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구호로만 남아있습니다. 진짜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개혁해 가는 (semper reformanda) 신학이어야 합니다. 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성향, 자기 보존과 자기 초월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초월 없는 자기 보존은 과거의 것을 보존하려고만 할 뿐 쇄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쇄신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는 자유주의 신학을 철저히 배운 다음 정통신학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칼빈도 철저한 인문학적 바탕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23살에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썼습니다. 거기에 인용된 라틴 저자만 55명입니다. 칼빈은 교부들뿐 아니라 키케로, 세네카, 베르길리우스의 저작에도 정통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인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성경을 토대로 한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수적인 것만 공부해서는 보수신학의 쇄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미국이나 한국 모두 ‘영혼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를 두고 오랫동안 양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 논문 막바지에 영국 성공회 사제이자 선교사로 유명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뉴비긴에게 “신부님은 복음주의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난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No, I'm not!).”라고 강하게 답하더군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인용하고 외우지만 실제로 읽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사회 정의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복음주의자는 성경이 말하는 사회 정의를 간과한다는 겁니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고 로잔 언약이 나왔습니다. 로잔언약은 전도와 사회정의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한국에도 열심히 소개되었지만 한국의 주류인 장로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로잔 언약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존 스토틀(John Stott)도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전도와 사회 정의는 이것이나 저것이나(either or)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both) 강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두 축을 고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회는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심으로부터 반경을 넓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삶의 자리를 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 힘을 얻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큼니다. 그래도 교회의 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중심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목사의 일터는 교회이고, 성도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양육할 때 성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생활 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처해 있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강조되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은 지극히 내밀한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만 동시에 공적인(public)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지혜

다원주의에는 ‘현상으로서의 다원주의’와 ‘추구하는 가치로서의 다원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상으로서의 다원주의는 음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중국 음식이나 이태리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의 체계는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유교, 도교도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종교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종교현상학으로 보면 기독교도 경전, 공동체, 예배, 성직자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현상을 서술하는 용어로서 다원주의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가치로서의 다원주의는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날의 종교 다원주의는 종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된 다원주의입니다.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른 종교, 다른 가치관과 지혜롭게 공존하려면 리처드 마우가 『무례한 기독교』에서 강조한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 마우가 강조하는 것은 ‘제발 좀 타인을 배려하는 기독교가 되고 확신은 갖되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존경, 선한 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 예수 믿고 예수 닮자

한국 개신교의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부터 6.25 이전까지의 기독교 신앙은 소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지배한 극단적 내세주의, 6.25 이후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복 받자'는 현세주의 신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만일 구호를 세워야 한다면 '예수 믿고 천당 가자'나 '예수 믿고 복 받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닮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우리에게 부가된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의 본을 따르는 삶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걸어갈 길입니다.

19세기 자유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Savior)라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이상적 인간의 모습으로만 그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가 먼저이고, "단순히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Lord)가 되신다"는 것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는 우리 삶의 모범이며, 우리는 그분이 사시고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작 예수와는 상관없는 곳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를 닮아, 예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삶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연히 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 앞으로 나타나게 될 한국 기독교의 미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당신의 종교가 무엇 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시 조선)은 다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교적 관례에 따라 제사 지내고, 도교적, 불교적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단일종교 정체성을 요구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딱히 응답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불교신자'로 말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무교(無敎)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와 관계없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세속화'는 갈수록 더 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두 가지 방향으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이 더 강화되고 소속감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는 방향으로 나가거나, 복음의 본질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받고 복 받고 소속된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신앙으로 나가거나 가난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으로 나가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정쩡 앉아 있는 경우도 많겠지요. 진보인가 보수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 어떤 신앙을 추구하느냐가 우리에게서 절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경우가 좁은 길을 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의 핵심을 손에 쥐고 모든 것을 버리는 삶과 세상살이의 수단으로 신앙을 애기하는 삶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

본 칼럼의 내용은 지난 11월,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의 월례포럼 "기독교의 두 얼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의 협조 하에 필요한 기사(개혁정론)의 도움을 얻어 게재되었습니다.